

광주 광산구, ‘행복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시책 64건 발굴... ‘시민 행복’ 증진 본격 행보 나서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생활 속 ‘소확행’ 정책도 눈길

광주 광산구가 지난 1월31일 구청에서 ‘2020년도 행복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 최고의 가치인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구 43개 실·과·소장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64건의 행복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행복시책으로는, 니트족 청년들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단단한 청년, 든든한 광산행복프로젝트’, 도심공원에서 자연과 문화를 만끽하는 ‘2020 문화공연축제, 행복한 광산의 사계’, 골목상권 분석 정보 제공과 자영업자 창원 지원의 ‘우리 동네 골목상권 정보서비스 제공’, 안전 빅데이터 분석으로 CCTV 등의 최적입지를 찾는 ‘과학적인 안전시설물 입지분석 지원’ 등이 발표됐다.

나아가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행복을 뒷받침하는 ‘소확행’ 정책들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사물인터넷을 마을 운동기구에 부착해 건강을 측정하도록 돕는 ‘IoT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생애를 책자와 디지털로 제작하는 ‘나의 행복 보물이 만들기 프로젝트’, 동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 등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를 해주는 ‘깨닫기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광산구는 이번에 발굴한 행복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행복시책 경진대회로 우수정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방자치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행복정책을 추진할 때가 됐다. 모든 행정은 시민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행복시책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먼저 행복해야 시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1,800여 광산 공직자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산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한 광산구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행복정책 담당부서를 ‘과’ 단위로 설치하고, 3개 영역 12개 항목 100개로 구성된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이 행복지표로 올해 시민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 행복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곡성군,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기여’

주민복지과 김대성 주무관

곡성군이 1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에 주민복지과 주무관의 공로가 있었음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38만 4천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42만 4천으로 2.94% 인상됐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도 기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근로연령층(25세~64세) 수급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및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낮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들의 경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 딸의 경우 미혼 30%, 기혼 15%의 부양비를 부과했다. 차등 없이 부양비를 통일하고 부양비율을 낮춤으로써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수급자 부양비 비율 개정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김대성 주무관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대성 주무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녀의 성비에 따라 부양비 부과율에 차등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법제처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 부양비 차등 부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2020년 지침에 반영됐다.

신안군복지재단, 가정방문 복지종사자

보건용 마스크(KF94) 7000매 전달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박균보)은 지난 1월31일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13개소를 비롯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에 보건용 마스크(KF94) 7,000매를 전달했다.

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1,000여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종사자와 수혜자에게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박균보 이사장은 “감염 예방의 기초 위생품인 마스크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제1기 교육 수강생 모집

총 47과목 634명

영암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제1기(3월~5월) 교육 수강생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주1회에서 주2회 운영된다.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교육으로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라인댄스, 피부관리, 우리춤, 영어기초, 문화댄스 등 7과목 160명, 여성교육으로는 요가, 난타, 규방공예, 골프, 한지공예 등 총 21과목 272명, 다문화가족 여성교육으로는 한국어 발음, 세라믹공예, 재봉틀

봉제 등 6과목 60명, 장애인교육으로는 제빵교실, 정보화교육, 문해배우기, 원예활동, 노래교실 등 총 13과목 142명을 모집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자세한 문의는 470-6754로 하면 된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속적인 체계적인 교육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생 재능기부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